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 타고 만난다

정율성·김현승·민주화운동...

광주 브랜드·관광자원 하나로 묶어 옛 전남도청·양림동 등 운행
금요일 1회·토요일 2회 티켓 1만원

정율성 음악가, 김현승 시인, 최흥종 목사,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버스를 타고 만난다.

광주의 브랜드와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은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문화예술 융합형 시내관광사업인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를 10월부터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야기 시내관광(스토리 시티투어) 버스는 핵심 관광지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야기와 연극, 음악 등을 융합해 도시의 브랜드와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는 지난해 대구 '김광석 음악버스',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에 이은 3번째 행사로 광주에서는 처음 진행된다.

이번 100년 이야기 버스가 들르는 주요 장소는 기독교의 근거지이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양림동과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던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양림동 골목에 숨어있던 193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과 아픈 현대사를 간직한 1980년 광주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한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2030년 광주를 연극과 노래 형식으로 보여주며 연극과 노래는 연기자 풀과 나비 등이 함께한다.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는 광주의 브랜드와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으로 옛 전남도청과 양림동 일대를 운행한다. 사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광주일보 자료>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를 탄 관광객들은 양림동에서 태어난 정율성 음악가와 김현승 시인, 최흥종 목사를 만난다. 이 과정에서 합일 투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율성 음악가의 고뇌와 사랑 이야기, 고독의 시인이자 가을의 시인인 김현승의 작품과 이야기, 독립운동과 한센병 환자 구호에 헌신한 광주의 아버지 최흥종 목사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밖에 5·18 민주광장에서는 배우들과 함께 5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는 매주 금요일 야간(오후 7시 송정역) 1회, 토요일 (오전 9시30분, 오후 2시30분 송정역) 2회 등 총 3회 운행한다. 이용권은 1만 원이며 공식 누리집(www.gjcitytour.com)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운영 경로는 송정역에서 출발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양림동(도보여행), 오월 광장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보여행)을 거쳐 다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들른 후 송정역에서 마무리한다. 문의 033-738-3413, 062-613-3642.

/백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도시들은 자신 스스로 문화국가와 문화도시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삶이 가장 앞서가는 문화적 상황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주'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우리 스스로도 전통과 현대적 의미로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라는 상징적 의미를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난해하다. 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질문은 현대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한 질문과 이에 따른 실현일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실현하는 우리의 광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은 문화예술을 위한 직접적인 공간의 확보와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창의적인

진정한 문화도시와 문화시민을 위하여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되는 '문화적 삶'이란 육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이다. 이는 오늘날의 빠르고 가시적인 현대사회에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보다 쉽게 말하면 물질적 가치나 명예보다는 건강한 육체와 지적이며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삶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존재감의 인식과 그에 따르는 행복감 그리고 독서와 영화감상, 음악 감상을 통한 정신적인 문화활동역시 매우 중요하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통한 미술작품의 감상 역시 우리에게 지적에너지를 제공하며 화가와 조각가들의 시각을 통하여 표현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관람자들에게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여 관람자체인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철학적인 경험으로도 승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문화선진국과 복지국가의 기준은 한편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의 공간 확보와 예산을 투자하는 현실적인 노력에 의한 그 사회 구성원의 문화 활동 참여도에 의거한다. 시민 개개인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문화소비에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시스템과 생산자수 그리고 소비자수로 설명되는 이른바

노력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분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그 도시의 위상과 미래가 결정된다고 한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미술문화가 꽃을 피워 예향으로 불리며 인구대비 미술인이 유난히 많은 문화도시이다. 오늘날 광주의 미술인들은 예로부터 예향인 광주가 미술문화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전 국민이 광주로 미술여행을 오는 꿈을 꾸고 있다.

국제적 현대미술축제로 자리 잡은 광주비엔날레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수목비엔날레는 미술애호가 혹은 전문가들이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다. 이와 맞물려 진행되는 지역의 수많은 공작미술관들의 다채로운 전람회가 열려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피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진정한 문화도시와 문화시민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 공간을 방문해보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위한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사직통기타 '광주사직통기타 버스킹데이' 진행 모습. <광주사직통기타추진협의체 제공>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31일~11월2일 아시아문화전당

2018 아시아문화포럼이 31일부터 11월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올해 12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치르고 있다.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디지털기술과 문화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계 학자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주제 전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개회식은 31일 오전 10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어 내년 6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총괄 디렉터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이 '네오토피아-기술과 휴머니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또 이철 전남대 교수와 김하림 조선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필립 종태 광운대 연구원과 강원 광주 동구정 인문도시정책관, 데이비드 오콘 싱가포르예술대 교수, 하태석 건축사무소 스케일 대표가 발제한다.

다음 날부터는 이틀 간 김봉중 전남대 교수와 김효성 광주전남기차협회장 등이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어간다.

아사미 호스카와 일본 삿포로 국제아트페스티벌의 총괄매니저, 신세은 버즈아트 대표, 안드레아 비바노 콜롬비아 로스앤젤레스대 교수, 올리버 그림 홍익대 교수, 최유준 전남대 교수가 이야기를 나눈다. 문의 062-613-34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일 '사직통기타 버스킹데이' 을 마지막 공연

'광주사직통기타 버스킹데이'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남구 사직통기타거리 일대(양림파출소 인근)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버스킹데이'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작은음악회', '돌담', '몽계구름', '트윈폴리오' 등 라이브 음악 카페 12곳을 주무대로 펼쳐지고 사직통기타거리에서 활동해 온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한다. 또 쓰지 않는 레코드판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을 전시하

는 '폴리 뮤직 박스'와 '뮤직 로드' 포토존을 운영한다. 더불어 통기타거리의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 조형물들로 사직통기타거리 곳곳을 채울 예정이다.

광주시남구청이 주최하고 광주남구사직통주민센터, 광주사직통기타추진협의체가 주관하는 '광주사직통기타 버스킹데이'는 내년 4월부터 새단장해 다양한 콘텐츠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70-4152-54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태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루팡 닭 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폴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치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운·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